

므나 이야기(눅64)

성경말씀: 눅19:11-27

공생애 요약

예수님의 사역 목적(눅4:18-19),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선포,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이나 예고하였으나 전혀 모름(18:31), 자리다툼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매오의 눈을 열어 주심: 공흠을 베풀(18:35-43)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함: 가장 극심한 죄인 구원, 취약함을 드러낼 때(19:1-10)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다 취약한 사람들

극도로 취약해야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라. 우리가 개미를 보듯

1.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시51:5, 16-17)
2. 구원받은 뒤에도 비참한 모습(롬7의 사도 바울), 부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3. 힘을 내서 살되 절대 본분과 위치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은 <므나 이야기>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분부의 말씀

배경

예루살렘 입성은 1월초에, 유대인들의 달력, 1월 14일은 유월절, 지금의 4월초

유월절: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의 구속, 가장 중요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지금은 로마의 속국,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함(눅3:15)

열심당원들의 테러,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하수인, 사두개인들의 탐욕, 바리새인들의 종교화 일반 유대인들은 이런 것 말고 구약성경 기록을 성취할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함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이분이 당장에 그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는 자들이 있음(11): 메시아 열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27킬로미터, 하루거리, 바디매오의 힐링: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들의 거부로 하늘의 왕국이 주어질 수 없음을 아셨다(11):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예수님께서서는 그 왕국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재림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것을 주문함

예수님 부활 후에도 이들은 왕국을 세울 것을 요청함(행1:6): 성경의 총 주제

므나와 달란트 비유

므나 비유 설명(13절)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모든 면에서 둘은 서로 다른 비유이다.

1. 하늘의 왕국(마25:14): 구체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왕국(눅19:11) 교회 시대 모든 성도
2. 3명에게 능력에 따라(15) 1, 2, 5달란트, 10명에게 모두 1달란트(눅19:13, 16, 18)
3.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 므나는 이방인들의 무게 단위
4. 1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에 들어감(마25:30), 므나 비유에서는 그 종이 지옥에 가지 않음(19:24)

문맥으로 봐서 므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롬14:10-13; 고전3:11-17;

고후6:10), 므나: 보통 사람의 세 달치 월급, 900만원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13): 거래하라. 사고팔고 바꾸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도 됨.

합법적으로 신실하게 관리하면 됨: 어떤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

한 가지 조건: 말은 없지만 제자라면 계산할 때 1므나보다는 더 있어야 함, 명백한 어떤 것 처음 두 사람은 성공함, 1므나로 10므나(열 도시, 16-17), 1므나로 5므나(다섯 도시, 18-19) 달란트의 경우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동일한 보상(마25:21, 23)

주님의 칭찬과 기쁨, 즉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도 신실하게 사용하면 보상에는 차이가 없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다(롬12:4-8),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신실하게 섬기면 동일한 보상 므나의 경우 성공한 두 사람: 보상 이야기가 없었으나 신실하게 관리해서 이익을 남김

주인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주인이 왕국을 실제로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과 도시들 차지: 예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므나의 의미

열 명의 종에게 각각 1므나, 예외가 없다. 모든 성도가 믿음, 능력에 따라 달리 준 달란트가 아니다.
시기: 주님이 왕권을 받으려 갔다가 다시 오는 기간(12): 교회 시대
이 시대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주신 므나는 무엇일까?
누구나 해야 할 일(막16:15): 복음 전파(행1:8; 살전2:4; 딤후1:11)

우리의 능력은 달라도 해야 할 일은 동일하다: 복음 선포, 영혼 구원, 교회의 확장
초대 교회: 120명(행1:15), 3000명(행2:41), 그 뒤 5000명(행4:4)
사도 바울(롬15:19)

복음 전파는 다 같은 데서 시작한다: 목사나 성도나, 바울이나 웨슬레, 무디, 루터, 우리나라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고전3:11-17).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신실함이다(고전4:1-2).
신실하지 못한 자: 10명 중의 최소한 한 사람 이상, 그는 그 1므나마저 빼앗겼다(24).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기회를 허비하면 보상의 손실을 입는다.

성경의 원칙: “신실한 사람은 더 신실하게 되고 반대는 반대로 나가게 된다”(요15:2, 5)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사람의 문제: 1. 자기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함(21), 2. 주님을 불공정하게 착취하는 자로 보고
있음(심지 않는 데서..), 3.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21). 4. 1므나를 지키는 데만 혈안,
자기만 구원: 능동적으로 일은 못하지만 1. 보수 신앙, 2. 보수 전통, 3. 아이들 주일 학교, 4.
기독교 관점, 5. 그럼에도 전할 수는 없다. 의무는 No!

우리의 섬김이 이런 식이면 보상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므로 그분을 섬겨야지 별별 떨면서 섬기면 주인도 힘들

우리의 일이 불에 탄다(고전3:15). 보상을 잃었다.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신실한가? 시간, 재능, 재물, 기도, 증언에서 능동적인가?
지난 25년의 삶, 재미없는 삶, 무미건조한 삶, 교정보고 다듬느라 시간 보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도 인구 1,000만 명, 죽기 전에 100만 명의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려주고 싶다.

가능하면 성경의 주요 책들을 다 설교하고 강해하고 갈 것이다. 많은 글과 동영상 제작하고 갈 것이다.

보상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잘 들어야 한다(눅8:18). 신6:4-5,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다른 한 부류: 유대인

여기에는 실제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1. 성공한 자, 2. 성공하지 못한 자, 교회 시대 성도들
다른 한 부류: 그를 미워한 그의 국민들(14), 이들의 운명(27)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 차지, 왕의 호칭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으므로 50명을 보내 아우구스투스 황제 앞에서 반대하게 함

그 결과 아켈라오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긴 하였지만 왕의 호칭은 받지 못함

곧 예루살렘 입성: 이 군중들은 곧바로 주님을 배반함(요19:14-16), 시69:4

대다수 유대인들이 표적은 원하였으나 메시아는 원치 않았다(요1:8).

주님의 선포(마23:39)

주님 부활 이후로 40년의 기간을 더 주셨으나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AD 70년에 성전 훼파, 유랑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주님이 하늘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할 일이 있다(행17:30-31).

결론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주님의 정혼자,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 전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 교회 건물, 아이들 교육, 목회자 양성: 교회가 같이 해야 한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버티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라: 학교 공부, 직장 생활, 가정생활, 믿음 생활